

창간 10주년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매화나무 아래서 매화꽃 띄우고 차한잔 마시는 매화차회.



담원 김창배 화백

“사회가 어려워지는 만큼 10여 년 간 그려온 선묵화를 모두 내놓을 생각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12월 7일 본사 '나눔의 손잡기'에 선묵화 30여점을 기증한 담원(潭園) 김창배(49·담원갤러리 관장) 화백.

차와 선에 심취하여 선묵화를 그려온 김화백은 “차와 불교는 나눔으로 귀결 된다”며 “30년 그림인생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2005년도에는 나눔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화백은 본지 뿐 아니라 2005년도에 강릉 자비원과 김홍국 장학회, 심장병재단에도 선묵화를 기증할 계획이다. 30여 차례 개인전과 200여회의 국내외 초대전을 개최한 김화백은 굵고 활달한 필력과 동양화의 모든 분야에 능한 독창성 있는 한국화가로 정평이 나 있다.

“찾잔은 내 몸이고, 차는 내 마음”이라 생각하며 먹과 그림을 그린다”는 김화백은 “홀로 조용히 마음을 관하고, 그 마음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다보니 차와 불교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김화백의 그림에는 고상성이나 선시, 작가가 받은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유독 많다.

충남 서산의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태어난 김화백은 어린시절 문설주에 걸려 넘어지면서 큰 가마솥에 빠져 사경을 헤매야 했다.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기자 집안에서 ‘부처님의 은막’이라 부르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기뻐”

김창배 화백, 선묵화 30점 본사 '나눔의 손잡기'에 기증

린 김화백을 마을 인근의 절에 보냈다.

절에서 생활한 1년의 추억은 훗날 김화백이 불교와 차 그리고 선묵화에 심취하는 계기가 됐다.

김화백은 대학시절부터 염불소리에 심취하여, 그림을 그릴 때면 꼭 염불테이프를 틀어놓고 작업한다. 염불소리를 들으며 작업하다보면 마음이 저절로 맑아진다고.

담원 김홍도의 맥을 잇는 북종화의 대가였던 고(故) 금추 이남호 선생의 수제자인 김화백은 “가능하면 불교의 정신, 달마의 행적을 더듬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애쓴다”고 말한다.

군포불교신도회 회장을 역임한 김화백은 “불교와 차 문화의 포교를 위해 선묵화를 그린다”고 말할 정도로 포교열정이 남다르다.

선묵화 달력을 25년간이나 만들어 보급해온 것은 물론 정보통신부 그림공모에 참여해, 차와 선을 표현한 선묵화 연화장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한국의 달마> 2권을 비롯해 <선방풍경> <차한잔의 풍경> <차한잔의 인연> <차한잔의 명상> <붓가는대로 마음가는대로> 등 글과 그림을 조화시킨 화문집도 7권이나 발간했다.

김화백은 더 나아가 선화의 세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00년 인사동 사거리 성보빌딩 3층에 30여점 규모의 상설전시관인 담원 갤러리를 열었다.

“전통의 거리 인사동에 불교가 없다. 그래서 선화를 전문 전시관을 열게 됐다”는 김화백은 현재 담원 갤러리에 달마도와 스님과 일반인들의 일상을 그린 선묵화 3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담원 갤러리는 누구나 찾아와 명상음악을 들으며 국산차를 마시고, 선묵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365일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02)736-7445

한편 현대불교신문사는 김화백의 기증그림을 2005년도에 국내외 전시회 및 인터넷 또는 지상전시회를 통해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02)722-4162

김원우 기자



시공간을 초월한 차를 정성스럽게 바치는 '현대도' (사진 위)와 빈산에서 다동과 차한잔 마시는 데 계곡에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는 '수류화개' (사진 아래).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교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나눔의 손잡기 성금

한마음선원 거사합창단 테너2팀(팀장 류석권) 일동 - 50만원, 무명의 스님 - 10만원

총 누적금액 28,903,500원

알림 - '나눔의 저금통' 회수합니다

연말을 맞아 본지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올 한해 전국에 배포한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 스티커 및 저금통 신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반야사포교원(원장 정담 스님) 저금통-150개, 스티커-150장
경남 거창읍 대동리 이육희 보살 저금통-10개, 스티커-10장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세요.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과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 법을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 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강,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본사 나눔의 손잡기 생명나눔 표창장 수상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로부터 협력단체 '표창장'을 수상했다.

12월 3일 인사동 느티나무에서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10주년 기념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임종민 후원부회장은 "현대불교신문사가 올 한 해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위령관(왼쪽) 부국장.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불교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가 커 표창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부분 표창에는 자원봉사자 현재우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현대불교신문은 2004년도에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협력단체로 골수기증사업 및 헌혈증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다.

김은경 기자

'좋은벗 풍경소리' 후원의 밤

16일 송현클럽...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기념법회

좋은벗 풍경소리(총재 지현)는 12월 16일 오후 7시 송현클럽에서 '2004 좋은벗 풍경소리 포교대상(공로상) 수상 기념법회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좋은벗 풍경소리는 12월 4일 조계종 포교원 주관으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제 16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법회에서 좋은벗 풍경소리는 부총재로 원명 스님을 추대할 예정이다. 또 1년 동안 '어린이 청소년에게 찬불동요 CD를 보냅니다'

캠페인을 풍경소리와 함께 전개한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이 현대종에 찬불동요CD를 전달할 계획이다.

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은 "이번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그간 마음을 모아 늘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제도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2)723-9836

김원우 기자

아름다운 선율로 어린 생명 살려요

자비복지원, 14일 후원기금 마련위한 초청 음악회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대표 부동 스님)이 복지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복지문화기금 마련을 위한 '제 2회 자비복지원 초청음악회'를 12월 14일 강릉대 해람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성악과 김관동, 국악인 김영임, 영산작법 전수자 임묵 스님 등 국내 정상급 음악가들이 함께할 이번 음악회는 하늘, 땅, 인간이라는 주제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 '하늘의 소리'에서는 아리아리랑, 그리운 이름이여, 박연폭포 등의 아름다운 민요와 가곡 등이 공연된다. 또한 2부 '땅의 울림'에서는 국

악인 김영임 씨의 태평가와 인목 스님의 범패작법, 무용사 김중우 씨의 한국무용 학풍 등이 선보인다. 3부 '인간의 어울림'에서는 대중가요 '보고 싶다' 등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자비복지원 산하 강릉자비원에 있는 김상도(경포고 2년) 학생의 치료비와 후원회 결성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상도 학생은 현재 희귀병인 골육종양을 앓으며 병원에서 항암치료 및 종양 제거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033)642-3535

김은경 기자